



유피에프앤비, 정읍시에 1900만원 상당 백미 기탁

국내 오리업계 1위 다향그룹의 계열사 (주)유피에프앤비(대표 고현주)는 12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9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500포를 전달했다.

(주)유피에프앤비는 지난 4월 신태인을 육가공산업단지에 둉지를 틀고 연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웃돕기 활동을 실천해온 유피에프앤비는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고현주 대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백미가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탁받은 백미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이웃돕기에 힘써주시는 유피에프앤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천장 연탄 5가정에… 훈훈한 사랑 실천

친절봉사회, 순창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전개

친절봉사회(회장 임규래)가 순창읍을 찾아 차가운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돋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친절봉사회 임규래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 9명은 순창읍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천 장을 순창 지역의 어려운 다섯 가정에 배달하여 훈훈한 사랑을 실천했다.

친절봉사회에서는 이날 팔덕면에 2가정, 복흥면에 2가정, 순창읍에 1가정 총 5가정에 연탄 400장씩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임규래 회장을 비롯하여 박만도 부회장 노규동 부회장, 이만호 사무국장, 서명자 재무부장, 임애경, 박광호, 윤복, 김규완 회원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했고,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매년 여름철에는 복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삼계탕 봉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 이웃자선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특별히 윤해에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임규래 회장은 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맞아 국민포장을, 채봉덕 회원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정숙 회원은 지난 10월 15일 남원에서 개최한 2024 직십자 봉사원대회에서 봉사원 대상을 수상하는 등 봉사활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만호 기자



이웃에게 큰 도움을 주신 임규래 친절봉사회 회장님과 임원, 회원들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친절봉사회(영광 친봉회)는 110여 명의 회원들이 이 십일암간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매년 여름철에는 복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삼계탕 봉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 이웃자선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윤해에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임규래 회장은 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맞아 국민포장을, 채봉덕 회원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정숙 회원은 지난 10월 15일 남원에서 개최한 2024 직십자 봉사원대회에서 봉사원 대상을 수상하는 등 봉사활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이 최근 열린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정숙 의원은 제9대 순창군의회에 입성하여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노인과 아동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는 한편, 최근에는 5분발언을 통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순창군민과 동료 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도통동, 한파·화재 대비 교육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12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도통동 통장협의회 49명을 대상으로 한파·화재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한파·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산불의 위험성, 한파 행동 수칙 등과 화재와 한파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선운산농협, 농식품부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최우수상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육)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서 지역농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선운산농협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관내 지역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자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토양 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시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화학肥料 사용을 줄여 환경 친화적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선운산농협이 친환경 농자재의 적극적인 공급과 더불어 화학肥料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다.

선운산농협은 올해 약 2억 3000만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투입해 조합원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 토양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천과 농업경쟁력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노력해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광활농협,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 행사

광활농협(조합장 임용용)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래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쌀 소비촉진과 농번기 농업인들의 간식을 위해 새벽부터 직원들이 직접 포장하여 광활농협 각 사업장에 내방하는 농민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임용용 조합장은 “최근 쌀값 하락과 시설설비자재비를 위해 하우스설치에 심신이 고단한 농민조합원을 위해 작으나마 위로해주고자 이번 행사를 전직원들과 함께 추진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무주종 제37회 총동창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무주종학교 제37회 졸업 총동창회(회원수 1백 명)에서 지난 12일 (재)무주종학교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회원들은 “중학교 졸업한 지가 40년이 됐어도 친구들 우정, 고장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주군의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며 “친구들의 고향 사랑, 인재 사랑의 마음을 모아 전하는 장학금이 무주에서 공부하고 또 도시로 나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종학교 제37회 졸업 총동창회는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1백여 명의 회원들이 같이 친목을 다니며 지역과 이웃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2015~) 평화여양원 어르신 이·미용 관리와 청소봉사 등을 해왔으며 매년 교묘(무주종학교)에 2~3백만 원씩 전달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마을을잇는사람들’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무주군은 12일 (사)마을을잇는사람들에서 장학금 1백만원을 (재)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군수)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현승 대표는 “마을을잇는사람들은 마을과 마을,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무주군 발전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단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기탁한 장학금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과 학비 지원 등의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마을을잇는사람들은 2015년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역량강화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역 공동체 운영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금동, 취약가구에 김장 김치 전달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노희순)는 지난 11일, 천거 14동에서 열린 도량비를 주민 참여 ‘띠꽃한 겨울 爰’ 글로 주민 김장 축제를 통해 담은 김장 김치 20봉을 지역 내 취약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김장 축제는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주관, 도량비(천거 14동) 주민들과 센터 직원 등 90여 명이 8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120포기의 배추를 김장해 60봉은 주민들에게, 20봉은 금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다.

전달받은 김장 김치는 독거노인과 청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복지 텁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며, 김장 전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부 확인과 겨울철 건강관리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노희순 동장은 “정성스러운 김장 김치를 마련해 준 도량비를 주민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더 돌아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보건소, 경로당 순회 구강관리 제공

진안군보건소(소장 라영현)가 상반기 실시했던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관리’ 사업이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음에 따라 12일 진안읍 원연장 마을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노년기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법, 구강건조증 개선을 위한 입체조 등 다양한 맞춤형 구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개인별 구강관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노년기 구강검진 및 상담,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올바른 치솔질 교육, 불소도포를 실시한다.

특히 개인별 구강 상담을 통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치아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교육 후에는 구강 위생용품 세트도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2일, 영재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방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도 꼬마소방관이 되어보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실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남원 119청소년단에 소속된 단원들을 포함 원생 4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인턴교육 및 소방서를 관람하고 체험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전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습 △소방서 관찰 △소방차 탐승체험, 방화복·헬멧 착용하기 등 소방관 체험 △구조구급장비 관찰 및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포토존’ 등이다.

나현철 예방안전팀장은 “지속적으로 소방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문화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